

# Style

조선일보

OCTOBER 2019  
vol.195



*Cart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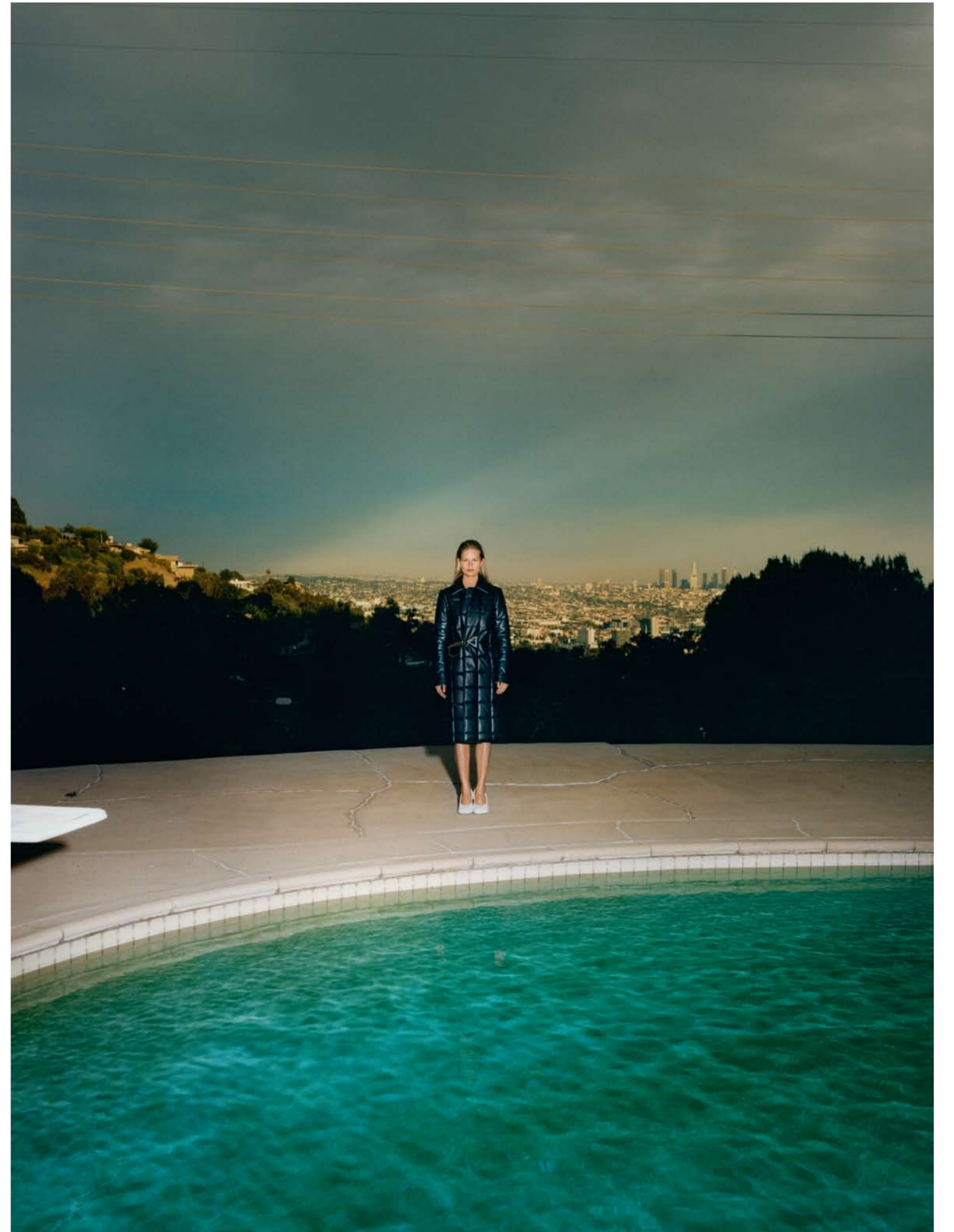
JUSTE UN CLOU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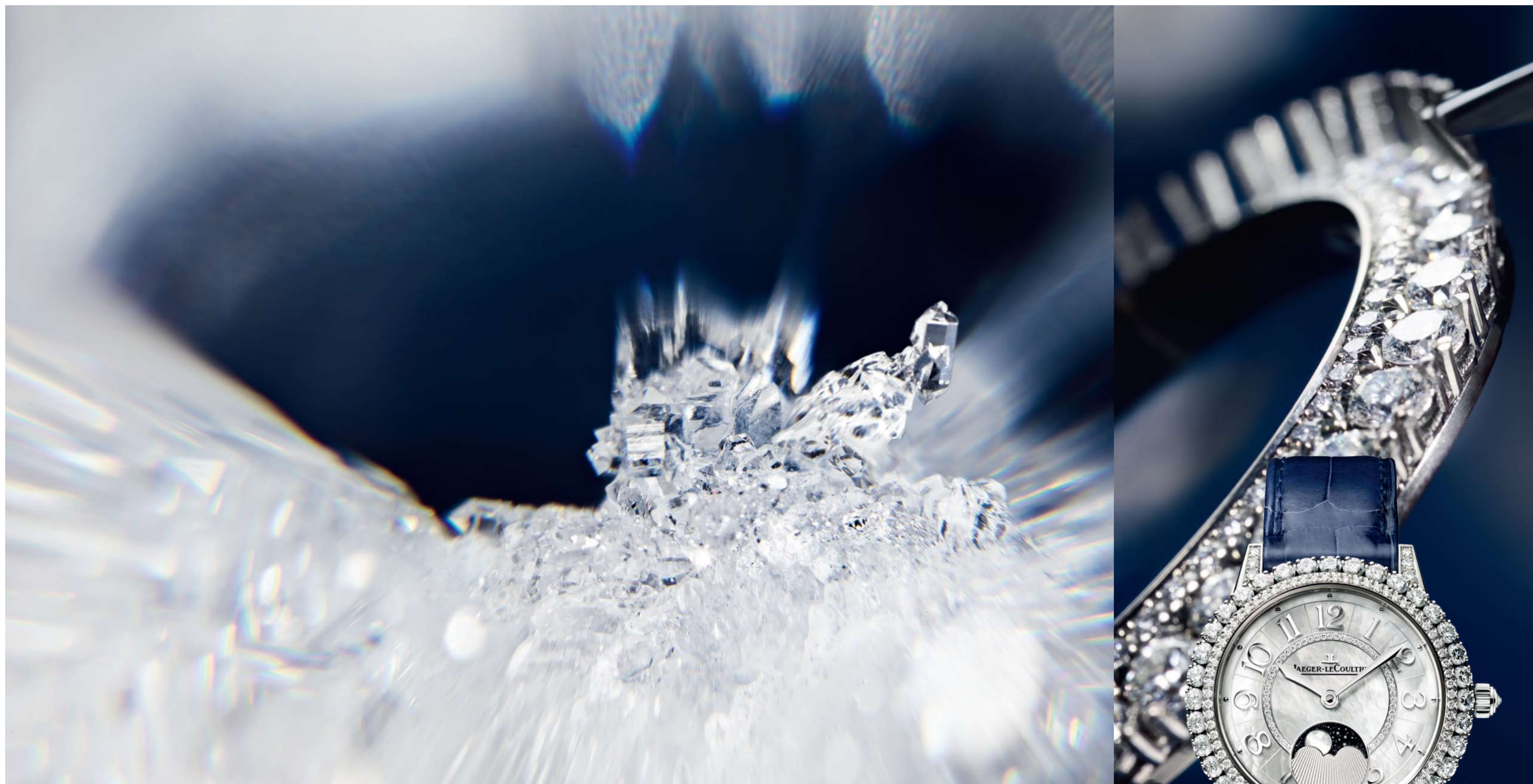
**BVLGARI**  
ROMA



**BOTTEGA**



**VENETA**



**JAEGER-LECOULTRE**

HOME OF FINE WATCHMAKING SINCE 1833

에저 르쿨트르 부티크

갤러리아 EAST - 롯데 에비뉴엘 - 롯데 월드타워 - 현대 본점 - 현대 무역센터 - 현대 판교 - 신세계 대구

Dazzling Rendez-Vous Moon.  
Manufacture movement 925B/1.



*Loro Piana*





20



41

28



단순하고 평범한 뜻을 완전한 주얼리로 탄생시킨 저스트 앵글루 컬렉션 브레이슬릿, 주얼리 테마로 는 상상을 초월한 이오브제는 강한 개성을 뽐내본 다. 표지의 제품은 18K 핑크 골드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 문의 1566-7277



16

- 16 **SELECTION** for her 과장되고 변형된 실루엣과 다채로운 소재로 즐기는 빈티지 클래식.
- 18 **SELECTION** for him 깊어가는 가을에 활용하기 좋은 빈티지 클래식 아이템.
- 20 **THE VAN GOGH EFFECT** 빈번하게 등장할 뿐만 아니라 반응도나 호감 등을 따져볼 때 성공으로 귀결될 확률이 높은 아트 콘텐츠를 꿈꾸려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를 떠올리지 않을 거다. 일찍이 한 사회학자가 지구촌을 휩쓴 '문화 아이콘'이자 '문화 현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반 고흐라는 브랜드는 강력한 파워를 지니고 있다. 1세기도 더 전에 태어나 10년 정도에 불과한 작가 커리어를 쌓은 그이지만, 지금도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 곳곳에서 고흐 전시는 어떤 방식으로든 열리고 있고, 수준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지만, 이름만으로도 관심을 끄는 데 유리하다. 그가 짧게나마 거쳐간 도시나 마을은 '고흐의 자취 따라가기' 같은 여행을 꾸린다. 끝나지 않는 고흐 신드롬은 21세기 와서는 어떤 형식과 결을 띠어 이어져 가고 있을까.
- 22 **WOMAN IN GOLD** 옐로 골드 주얼리와 브레이슬릿 워치의 찬란한 매력.
- 24 **EXOTIC ENCOUNTERS** 낯설고 신비로운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야생을 영감으로 탄생한 이국적인 하이 주얼리.
- 26 **2019 F/W TREND REPORT** 본격적인 F/W 시즌이 시작됐다. 이번 가을과 곧 다가올 겨울, 꼭 기억해야 할 남성 컬렉션 키워드 6.
- 28 **BAG OBSESSION** 뉴 시즌, 뉴 백의 유혹, 그리고 결코 버릴 수 없는 잇백에 대한 집착.
- 36 **FALL'S ESSENTIAL** 실크부터 레더까지, 풍성한 소재로 돌아온 가을 셔츠의 향연.
- 37 **THE CITY TRAVELER** 단순한 클래식을 넘어 시대를 반영한 소재와 디테일로 진화해 여행자를 위한 다채로운 제품을 제안해온 몽블랑. 새롭게 선보이는 #MY4810 나이트플라이트 트롤리와 익스트림 2.0 컬렉션은 시티 여행에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다.
- 38 **BLACK IMPRESSION** 스트랩부터 로고, 버클 장식까지 올 블랙으로 강렬한 존재감을 자랑하는 뉴 백 7.
- 39 **URBAN CHIC** 바야흐로 가을, 우아하면서도 실용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어떤 셋세터를 위해 마이클 코어스가 제안하는 시그너처 백과 슈즈.
- 40 **AUTUMN NOTES** 서늘한 가을바람에 잘 어울리는 깊고 진한 향으로 같이 입어야 할 시간이 왔다.
- 41 **깊고, 고요하고, 빛나는 검은 현(玄)** 품고 있는 색이 많기에 그 색을 온전히 담을 수 없어서 검고, 고요함을 더 표현할 수 없어서 검다. 이런 우작가의 작품에는 가진 표면 속 침착하게 빛나는 철학의 손길을 마주하는 시간이 선물처럼 담겨 있다.
- 42 **EDITOR'S PICK** 이번 가을, 당산을 더욱 아름답게 가꿔줄 뷰티 아이템 13.

FENDI.COM



SCAN WITH THE FENDI APP TO SEE EXCLUSIVE CONTENT

# Style 조선일보 Issue.195 October 2019



## stylechosun.com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정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이혜미 hmlee0909@chosun.com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ih5567@chosun.com 분해·재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사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 FENDI

**Jewel OPEN MINDED**

유려한 선형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오픈 타입 밴글 & 링.

(위부터) 퀼팅 모티브의 베이지 골드 오픈 밴글 **어벤저스 사설 와인 주얼리**. 아이코닉한 T 모티브에 터키이즈,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티파니 T 칼라 와이어 브레이슬릿 **3백50만원 티파니**, 양 끝에 카보숏 화이트 칼레도나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핑크 골드 포제션 오픈 밴글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파이제**, 스몰의 줄기와 이파리를 모티브로 한 쿠젤 캄락션의 시쿠라골드 더블 핑거링 **3백30만원 티파니**, 화이트 골드와 옐로 골드 밴드를 조합한 투핑어 크로 크리시링 **어벤저스 사설 와인 주얼리**, 오픈 링으로 연결한 골드 비즈 장식 트윈 모티브에 다이아몬드, 터키이즈를 세팅한 **베를리 비트윈 더 핑거링 1천2백50만원 반블러드 이젤**, **에더터 야미미**



**Fashion QUILTING ZONE**

퐁퐁 튀는 매력으로 취향 저격에 나선 퀼팅 디테일.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태슬 장식과 곡선 형태 퀼팅 디테일로 재미를 더한 미타르세 바킷 백 **1백37만원 미우미우**. 이번 시즌 키트렌드로 떠오른 스케이퍼 형태 토가 롬보이는 블랙 가죽 **핑크스 1백20만원 5천원 보타가 베네타**, 세 가지 수납공간으로 실용성을 강조한 GV 3단 지갑 **63만원 자정시**, 부드럽고 가벼운 양가죽으로 완성한 싸시 미디엄 체인 **슬더백 61만원 마이클 마이클 코어스**, **에더터 야미미**



**Beauty TO THE LAST DROP**

마지막 한 방울도 남김 없이 사용해야 할, 쏠쏠한 고농축 케어 인생템.

(위부터) **시슬리 시슬리아 캄레도날 앙티 아주** 첫 번의 사용만으로 미세 라인을 부드럽게, 피부를 탱탱하게 해주는 데다 수분까지 공급해주는 크림. 8주 후에는 광이 나는 피부를 경험할 수 있다(50ml 50만원). **클레르보 보메 디세일** 브랜드의 독자 성분이자 더욱 강력해진 뉴 스킨 인피우팅 일루미네이터가 피부 보라의 회복 및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세 가지 해조류 추출물인 램플렉스가 피부 재생력을 높여준다(30ml 19만5천원). **사설 르 리프트 세럼** 식물성 알팔파 농축물과 블랙 페퍼민트를 함유해 비르자 마저 피부가 리프팅되는 느낌을 받으며, 그 효과가 24시간 지속된다. 단 한 번의 스팀만으로 피부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사설 30ml 21만4천원**. **원동 압출리 리치 크림** 수천 송이 장미에 함유된 응축된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았다. 주름으로 인한 노화의 흔적을 없애주고 깊은 주름도 완화해 매끄럽고 부드럽게 해준다(60ml 39만2천원). **리프레이시 화이트 케어 일루미네이팅 필 인튜전 골드** 카이아 추출물을 함유한 무자켓팅 필라 스킨 보타르네스 리퀴드 젤을 담은 세럼. 붉은 기, 칙칙함, 피부 톤 개선에 도움을 준다(30ml 7만2천원). **경량 오가드 인테리언 더 롱제버터 컨센트레이트** 두 가지 오가드 추출물과 타 아거 닷 추출물이 피부 깊숙이 집중 작용해 피부를 건강하고 탄탄하게 만들어준다(30ml 70만8천원). **테코레 AQ 일루미네이팅 인텐시브 리치-레이핑 크림** 1년 중 단 몇 주만 기능 가능한 저자극 무수액,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아르시미성 배-후쿠키 추출물 등 진귀한 성분을 정제된 비올라 베릴리제 주름 개선과 리프팅 윤기, 보습을 선사하고, 피부에 최상의 만족을 주는 크림. 전 주얼 크기가 양한 클림 사용해도 효과를 느낄 수 있다(45g 1백50만원). **에더터 장라온**

**INSIGHT**

편잡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Focus 백남준 최대 규모 대표작 '다다익선' 복원된다**

비디오아트 창시자로 불리는 백남준이 남긴 유작 중 모니터 1천3대가 동원된 최대 규모의 대표작 '다다익선'(1988)이 복원될 전망이다. 1988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이 개관하면서 장소 특성적 설치 작업으로 선보인 이 작품은 이후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지난해 2월 브라운관(CRT) 모니터의 노후에 따른 화재 발생 위험 등 안전성 문제로 가동이 중단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현재의 브라운관 모니터를 정확한 원형 유지를 기본 방향으로 삼고 보존과 복원 작업에 들어가 2020년 전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독일 ZKM, 미국 MoMA, 휘트니 미술관 등 국내외 우수 미술 기관 전문가 40여 명의 자문과 유사 사례를 조사하고 CRT 모니터를 대체할 만한 신기술 적용 여부도 검토한 다음 내린 결론이다. 이에 따라 다다익선의 CRT 모니터는 20세기기를 상징하는 미디어 매체로 시대성을 반영하기에 재생이나 중고품 구매 등의 방법을 통해 최대한 원형을 복원하고 부품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대체 가능한 신기술을 부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백남준은 자신의 작품에 새 기술을 수용하는 데 적극적이었고, 작품에 활용한 기존 제품이 안정될 경우 신기술을 적용해도 좋다는 의견을 생전에 표명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백남준의 대표작인 만큼 세계 미술계의 시선을 받고 있고, 향후 백남준 미디어아트 복원의 대표 사례로 남을 수 있는 만큼 성공적인 복원 작업에 부여되는 의미가 크다. 복원 프로젝트의 전 과정은 연구 백서에도 담길 예정이다. **에더터 고성연**



다다익선 설치를 구상하는 백남준(1987)



320여 대 수복한 뒤 다다익선(2015) ©남궁선

사진:MBN/MCA

**Exhibition <김순기: 게으른 구름>+<실버 메모리: 기원에 도달하는 방법>**

프랑스를 주 무대로 활동해온 예술가 2명의 전시가 서울 하늘 아래 펼쳐지고 있다. 먼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는 미술가이자 시인 김순기의 개인전이 2020년 1월 27일까지 열린다. 20대 중반에 나스의 국제예술교류센터 초청 작가로 선발되면서 프랑스를 건너간 김순기는 예술, 철학, 과학이 접목된 실험적인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프랑스 남부의 철학자, 예술가 그룹과 교류했던 그는 1980년대부터는 파리 교외 비엘메종(Viel-maisons)의 농가를 개조한 작업실에 거주하면서 동서양 철학, 시간과 공간 개념에 관한 탐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술 언어를 모색했다. 전시명 '게으른 구름'은 김순기가 쓴 시 제목이기도 한데, 타자가 규정한 틀에 갇히지 않고, 뒷발을 일구고 뒷걸음질 쓰는 등 일상의 매끈 매끈이 결정적인 순간을 공경하며 사유하고 행동하는 일로써의 게으름을 뜻한다고, 영상, 드로잉, 회화 등 2백여 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는 2019년 현재의 시간과 공간을 고찰한 신작 퍼포먼스 시간과 공간 2019도 만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이틀리에 에르메스에서 진행 중인 40대의 한국계 프랑스 작가 다프네 나르 세르장(Daphné Nan Le Sergent)의 전시 <실버 메모리: 기원에 도달하는 방법(Silver Memories: How to Reach the Origin)>. 주로 사진과 드로잉을 혼용하거나 다른 이미지의 사진이나 비디오를 병치함으로써 상이한 이미지 영역들 사이에서 묘한 자각적 긴장을 만들어내는 작가의 예술 언어는 상당히 저차되고, 매력적이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은광(銀光)의 근원을 찾아 나선 작가의 여정처럼 만날 수 있는데, 우연히 이 고갈 위기에 놓였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고 있던 수많은 시간과 관련된 기억을 기록하고 되살려 다시 작조하게 됐다고, 11월 10일까지. **에더터 고성연**



다프네 나르 세르장(Daphné Nan Le Sergent) 전시 현장



**ROGER DUBUIS**  
DARE TO BE RARE

**EXCALIBUR HORACAN**  
Powered by Raging Mechanics

신세계 강남점 에비뉴엘 본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현대백화점 본점

www.rogerdubuis.com - Follow us on Instagram





for her  
**Selection**

과장되고 변형된 실루엣과 다채로운 소재로 즐기는 빈티지 클래식.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원형 메탈 장식이 상징적인 벨트 30만원대 **폴로 힐프 로렌**.

플리츠 장식의 GG 문 스티치 브리츠 미니 드레스 4백40만원대 **구찌**.

부드러운 손이 거친 손으로 양방향 메탈제인 벨트스 1백20만원대 **마이클 코어스 알렉산더**.

비케트 백의 간결한 형태를 그대로 축소했다. 아이본 케이스나 카드 지갑으로 활용하기 좋은 박창 85만원대 **펜디**.

레드 비즈가 시선을 사로잡는 디올 타이탄스 아이벌 50만원대 **디올**.

포인트 아이벌을 활용하여 금색의 원형 장식을 포인트로 **토미 힐프 로렌**.

골드 톤 크리스탈 장식이 화려한 스테이트먼트 네크리스 1백19만원대 **아틀리에 스와로브스키**.

스페르미트 유한형 에디션의 이세영 예티 이미지

매끈한 바이닐 소재로 미끈한 가죽 포인트로 미니 브리츠 1백20만원대 **버버리**.

손목에 두루거나 7층에 매듭지어 연출 가능한 패더 카쿠를리우 프린트 실드 트릴 스타프 35만원대 **말버리**.

골드의 픽처 제스처 소재를 조합한 구름 패턴 체인 아이벌 95만원대 **보태가 베네타**.

간결한 실루엣이 돋보이는 벨트와 2색 패턴의 인양 플레시로 미니 브리츠 스타프.

- 구찌 1577-1921
- 에르메스 02-542-6622
- 루이 비통 02-3432-1854
- 펜디 02-2056-9023
- 디올 02-3480-0104
- 토미 힐프 02-3438-6008
- 샤넬 080-200-2700
- 말버리 02-3438-6140
- 버버리 080-700-8800
- 보태가 베네타 02-3438-7682
- 자형시 02-546-2790
- 로로피어나 02-546-0615
- 마이클 코어스 알렉산더 02-546-6030
- 아틀리에 스와로브스키 02-6930-9864
- 폴로 힐프 로렌 02-6004-0133
- 플레시 바이 엘라 스타프 02-3449-5197

입체적인 솔더 라인이 특징인 체크 울 크래프트 재킷 4백75만원대 **자형시**.



it starts with a dream



for him  
**Selection**

깊어가는 가을에 즐기기에 좋은 빈티지 클래식 아이템.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캐시미어 소재의 레드 체크 재킷 8백50만원 브리오니.

가볍고 부드러운 베이비 캐시미어 체크 머틀리 1백50만원대 로로피아나.

아반 양자를 모티브로 한 마이스터스틱로 블랙 프렌치 프레스 레진 트로그림 빈티지 98만원 몽클레.

두꺼운 재킷에 고글스모운 재킷과 47만원 몽클레.

캐시미어 벨트 스카프를 3중한 장갑 1백50만원 몽클레.

플러쉬한 카프스 원크 31만5천원 조르조 아르메니.

스퀘어 형태 일명 라운드 토기 대조적인 플러쉬한 데미 시즌 1백50만원 보테가 벤투라.

실용적인 라운드 프렌치 신발리스 46만5천원 몽클레.

고급의 룩소시 장식으로 상냥을 다한 무티 3백50만원 구찌.

스퀘어 형태 일명 라운드 토기 대조적인 플러쉬한 데미 시즌 1백50만원 보테가 벤투라.

단정함 글렌 체크 재킷 가격 미정 브루넬로 쿠치넬리.

구독주자로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키홀더 70만5천원 벨루티.

내향한 카프스 원크 39X 95cm 2백41만원 토즈.

고리 장식으로 탈착 가능한 미니 모노그램 라운드 케이스 90만원대 루이 비통.

- 브루넬로 쿠치넬리 02-3448-2931
- 조르지오 아르메니 02-549-3355
- 에르메네제쥘도 재나 02-518-0285
- 로로피아나 02-546-0615 구찌 1577-1921
- 몽클레 1670-4810 브리오니 02-6905-3760
- 몽클레 02-3433-6593 에르메스 02-542-6622
- 몽클레 02-514-0900 보테가 벤투라 02-3438-7882
- 프리다 02-3218-5331 벨루티 02-547-1895
- 루이 비통 02-3432-1854 토즈 02-3438-6008



**GENIUS IS BORN CRAZY**

# the Van Gogh effect

빈번하게 등장할 뿐만 아니라 반응도나 호감 등을 따져볼 때 성공으로 귀결될 확률이 높은 아트 콘텐츠를 꼽으라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일찍이 한 사회학자가 지구촌을 휩쓴 '문화 아이콘'이자 '문화 현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반 고흐라는 브랜드는 강력한 파워를 지니고 있다. 1세기도 더 전에 태어나 10년 정도에 불과한 작가 커리어를 쌓은 그이지만, 지금도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 곳곳에서 고흐 전시는 어떤 방식으로든 열리고 있고, 수준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지만, 이름만으로도 관심을 끄는 데 유리하다. 그가 짧게나마 거쳐간 도시나 마을은 '고흐 자취를 따라가기' 같은 여정을 꾸린다. 끝나지 않는 고흐 신드롬은 21세기 와서 어떤 형식과 결을 띠어 이어져나가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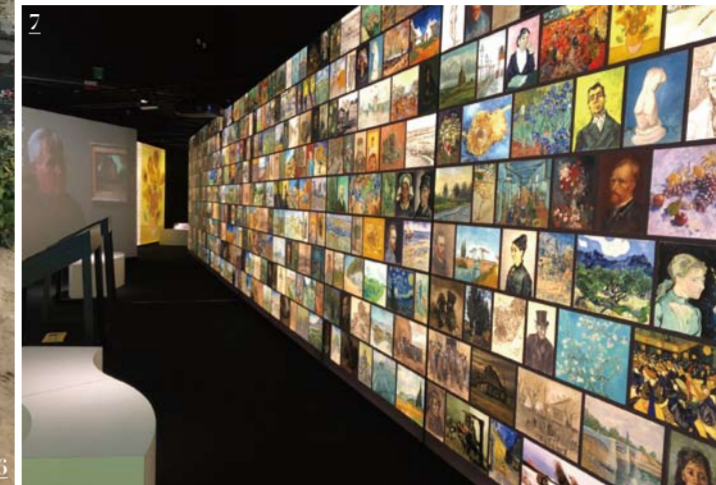
“언젠가는 카페에서 나만의 전시를 열 수 있는 방도를 찾을 거라고 믿어.”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애뜻한 사랑을 받고 있는 화가가 아닐까 싶은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가 1890년, 길지 않은 생을 마무리한 라부 여관에 가던 그가 실제로 묵었던 작고 허름한 방의 벽에 적혀 있는 문구다.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반 고흐의 소박하기 짝이 없는 소망이었다. 그로부터 1세기가 훌쩍 지나버린 오늘날 반 고흐 신드롬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글로벌 스타로 위세를 떨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어이가 없을 정도로 소박하다. 고흐 자체가 대단한 야심가도 아니었지만,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소박함이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반 고흐는 생전에 단 한 점의 작품만 판매했을 정도로 자신이 살아가던 시대의 인정을 받지 못한 인물이었다. 누마 크로앵이라는 노인에게 돈을 빌린 반 고흐가 손수레 하나를 빌려 자신의 그림을 가득 담아 달러가 '사정상 돈을 갚을 수 없지만 대신 이 그림들을 가져도 좋다. 언젠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건넸지만 '그냥 돈을 받았다 치겠다'는 답을 들었는데, 나중에 이 노인의 아내가 "당신도 참, 수레만이라도 받아놓지 그랬어"라며 통탄해하지 않았다는, 풍문과 문헌 사이에서 떠도는 일화도 전해진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카페 정도의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여단가에서는 내로라하는 미술관이나 문화 예술 공간에서 반 고흐 전시가 열리고 있고, 그의 그림값은 경매에서 수백억 원대에 낙찰했다는 소식이 가끔 들릴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는다.

## 글로벌 팬덤을 일으킨 고흐 효과

게다가 빈센트 반 고흐에게는 '글로벌 팬덤'이 있다. 그의 모국인 네덜란드는 물론이고 이제 관광 명소가 된 라부 여관을 비롯해 우애가 좋았던 동생 테오와 나란히 묻혀 있는 묘지가 자리한 파리 근교의 마을 오베르쉬르우아즈(Auvers-Sur-Oise), 혹은 그가 이 마을에 오기 전에 수년간 머무르면서 많은 명작을 남긴 프랑스 남부의 소도시들에 가보더라도 고흐의 발자취를 느끼려고 전 세계에서 찾아온 이들을 늘 마주치게 된다. 사교성이 별로 없고 직선적인 성격으로 충동을 일으키기도 했던 반 고흐는 한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다. 서른일곱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프랑스 등 4개국에 걸쳐 스무 군데가 넘는 지역에서 살았다. 고흐의 팬들은 이 '외로운 영혼'이 머물렀던 곳을 일부러 구석구석 찾아가는 경우도 많다. 빈센트 반 고흐를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설명하는 나탈리 에니히(Nathalie Heinich)라는 사회학자는 '세상의 이해를 받지 못한 불운한 천재'라는 인물상으로 예술가를 숭배하는 문화 현상은 반 고흐 이후에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인정을커녕 거의 혹평 내지는 무관심을 받으면서 소외됐던 그가 사망한 1890년에 처음 전시를 담은 비평가의 글이 나왔고, 사후 30년여에 걸쳐서도 여전히 대중에게는 이해받지 못했으며, 1990년에 이르러 천재성과 광기의 결합이라는 독특한 요소를 지닌 인간 반



6 빈센트 반 고흐, 그리고 그와 우의가 돈독했던 동생 테오가 나란히 묻혀 있는 묘지. 파리 근교의 오베르쉬르우아즈(Auvers-Sur-Oise)에 위치한 묘지에서는 늘 전 세계에서 찾아온 고흐의 팬들을 볼 수 있다. Photo by SY Ko 7 가장 방대한 반 고흐 컬렉션 보유인 암스테르담 반 고흐 미술관의 아이리시 갤러리 전시 중인 빈센트 반 고흐를 만나다(Meet Vincent van Gogh)라는 체험형 전시. 보다 많은 이들이 반 고흐의 예술 여정과 삶에 공감할 수 있도록 미디어 아트와 3D 프린팅 등을 반영해 만든 전시 콘텐츠로, 버르셀로나, 서울 등에서 소개했다. 사진 제공: 마스트 언더 테크놀로지 8 빈 고흐가 입원했던 생모 드 오송(Saint-Paul de Mausole) 수도원의 정신병동이 있는 프로방스의 아를 다운 마을 생레미 드 프로방스(Saint-Rémy de Provence) 풍경. 수도원을 찾아가는 산책로에 반 고흐의 복제화 패널이 곳곳에 놓여 있다. Photo by SY Ko 9 오베르쉬르우아즈의 교회를 담은 빈 고흐의 작품 'L'Église d'Auvers-sur-Oise'(1890), huile sur toile, 94x74.5cm, Musée d'Orsay, Paris © Bridgeman Images 사진 제공: 컬처스페이스(Culturespaces) 10 아를의 노란 집을 담은 빈 고흐의 풍경화 'The Yellow House(The Street)', oil on canvas, 72x91.5cm, 1888년이나 1889년적으로 추정된다. 사진 제공: Van Gogh Museum, Amsterdam



고흐'에 대한 폭발적인 애정이 표명됐는데, 오히려 이 같은 극적인 전개와 더불어 잔다르크나 나폴레옹처럼 대중성을 동반한 예술계 최초의 영웅으로 추앙받게 됐다는 논리다. 1890년 반 고흐가 세상을 떠나던 해 '격정, 강렬함, 햇살로 충만한 빈센트의 놀라운 그림들이 여기 있다'는 내용의 긍정적 비평이 최초로 나왔고, 1891년에는 이 흥미로운 예술가의 인간적인 면모를 조명했는데, 전문가들이 점차 관심을 드러낸 게 시초였다. 동생 테오가 머지않아 형의 뒤를 따라갔고, 고갱이나 에밀 베르나르 등 그를 아는 이들의 입에서 전해진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광기, 비범성이 결합되면서 반 고흐는 '차별된 존재'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딱히 처음부터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필자도 우연히 비슷한 '고흐 따라가기' 여정을 밟은 적이 있다. 취재차 암스테르담에 갔다가 반 고흐 미술관을 다시 찾았는데, 반추해보니 하차 시설 배낭여행을 하다가 이곳에서 샀던 '아이리시' 프린트 한 점이 생애 최초의 아트 상품이 라고 할 수 있다. 또 런던, 프랑스 파리에서 고흐의 삶과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풍경과 전시를 두루 경험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프로방스에서 길거리 성당과 카페, 하늘을 수놓은 별, '미스트랄'이라 불리는 강한 바람과 올리브 나무 등 곳곳에서 고흐의 흔적이 짙게 느껴지는 여행을 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고흐 숭배자들을 맞닥뜨렸음은 물론이다.

## 고흐가 실제로 작업을 했던 마을에 가도 고흐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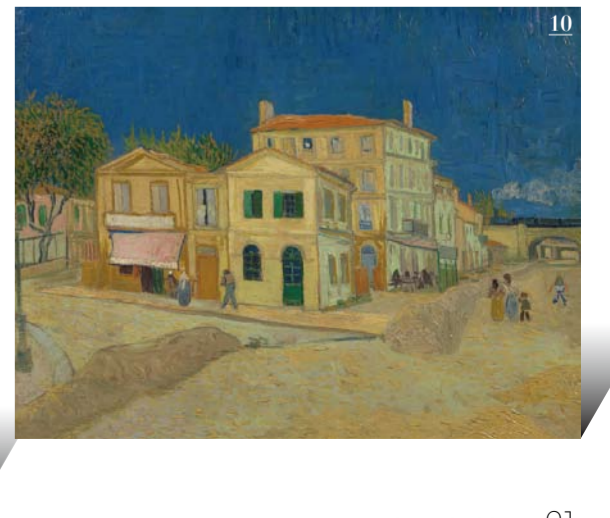
그러나 고흐의 동선을 따라가더라도 암스테르담의 반 고흐 미술관이 아닌, 뉴욕, 파리 같은 주요 대도시의 미술관을 제외하면 그의 오리지널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기는 쉽지 않다(특히 고흐의 명작이 많이 나온 지역인 프랑스 남부에서 그렇다). 사실 자신의 예술에 대해 몹시 열정적이었지만, 실제 화가로서 커리어를 쌓은 세월은 세상을 떠나기 전 10년 남짓한 기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는 2천여 점의 꽤 많은 작품을 남겼다(그렇게 짧은 경력에 아니었다면, 그리고 서른일곱의 나이로 죽지 않고 좀 더 살아 있었더라면 소규모 전문가 집단에서만 큰 충분히 인정을 받지 않았겠냐는 의견도 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50~60대가 되기 전에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화가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 고흐는 평생에 걸쳐 작가로서 인기를 누리진 못했지만 그가 스쳐 지나간 작은 마을들에 해당 지역의 풍경이나 인물을 연상시키는 작품이 안타깝게도 남아 있지 않다. 아마도 작가 생전에 작품 구매는 차치하고서라도 기증이나 교환 같은 방식으로라도 지역 미술관이나 컬렉터의 소장 품이 됐든지 하는 일이 없기 때문일 터다. 그래서 '해바라기', '별 헤는 밤', '노란 집', '밤의 카페' 같은 명작을 탄생시킨 아름다운 프로방스의 아를(Arles), 생레미 드 프로방스(Saint-Remy de Provence)에 가보면 그가 작품의 영감을 받았거나 소재로 삼았던 장소마다 복제본이 걸려 있을 따름이다(기획전을 여는 미술관도 터러 있기는 하지만 빈번하지는 않다). 글머리에 언급한 라부 여관의 경우에는 카페 전시를 꾸민 반 고흐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가장 아름다운 작품 한 점이 그가 거주했던 방에 걸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글귀가 적혀 있다. 물론 반 고흐가 영감을 받았던 자연 풍경이나 카페, 집 등을 배경으로 '고흐 따라잡기'를 하는 재미도 분명 있기는 하지만, 생전 한 점의 작품만을 저렴한 가격에 팔았는데 1세기도 넘게 지난 지금, 그의 추억이 진하게 묻어 있는 장소에서도 그림 한 점을 구하기 어렵다니, 참으로 '웃픈' 상황이 아닐 수 없다.

## 21세기에 고흐를 '소환'하고 '흡수'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요절한 천재를 둘러싸고 지주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그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에 일단 불이 붙었을 때 파급효과도 더 컸고, 작품 가격도 더 치솟게 된 것'이라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어쩌면 반 고흐가 다시 살아

날 수도 없는 데다 그의 작품을 소장한 미술관에서 한정된 수의 귀히더귀한 컬렉션을 인심 좋게 자주 대여할 리도 없으므로, 대중 입장에서는 작품을 보러 몸소 여행을 떠나거나 성심성의껏 꾸린 기획전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반 고흐가 파랑과 녹색의 자연 때문에 사랑했던 프랑스 남부 아를은 그런 점에서 운이 좋은 편이다. 문화 예술 후원에 발 벗고 나선 재력가의 도움으로 반 고흐 재단 미술관(Fondation Vincent van Gogh Arles)에서는 몇 년 전부터 늘 고흐의 작품이 포함된 전시를 볼 수 있게 됐다기 때문이다. 고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력 미술관 등과 협업해 고흐의 드로잉 전시라든가 고흐와 현대미술가들의 그룹전이라든가, 다양한 기획을 선보인다.

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식으로 참신하게 확장된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차선책이 아닐까 싶다. 아니, '원활'을 능가할 수는 없었지만 상당히 창조성이 풍부하고 즐거운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례가 요즘 들어 눈에 띈다. 그중 하나를 꼽자면 암스테르담의 반 고흐 미술관에서 고안해낸 대안으로, 방대한 컬렉션을 바탕으로 생동감 넘치는 미디어 아트와 높은 수준의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전시 콘텐츠다. 특히 릴리프그래피라는 특허 기술 등을 활용해 작품의 실물 크기는 물론 물감의 결, 두께 등을 그대로 살린 '뮤지엄 에디션'은 테크놀로지를 콘텐츠로 잘 적용한 사례다. 얼마 전 한국에서도 <빈센트 반 고흐를 만나다>라는 '체험형 전시'로 소개된 바 있다. 영화 세트장 같은 구성으로 그의 삶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흥미를 북돋우고 원화 전시라던 도저히 불가능한 '작품 터치'를 통해 고흐의 붓 터치나 질감을 느껴볼 수도 있어 호응도가 높았다. 반 고흐 미술관의 악설 퀴즈 디렉터는 많은 소장품이 손상의 우려, 운송의 제약 등으로 외부로 나가는 일이 극히 드물기에 반 고흐를 소개할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왔으며 최신 오디오 비주얼 기술 덕분에 작가의 삶과 예술적 발전 등을 조명하는 여행에 많은 이들이 초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음악이 강력한 매체로 작용하는 미디어 아트 전시도 있다. 공간의 벽과 천장, 바닥에 이미지가 투사되는데, 작품을 배경으로 하는 장면이 마치 춤을 추듯 계속 바뀌면서 '빛의 체험'의 묘를 보여주는 전시로, 프랑스 문화 예술 기업 컬처스페이스(Culturespaces)가 운영한다. 현재 프랑스 남부의 레보드프로방스와 파리에서는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Van Gogh Starry Night)>전이 열리고 있는데, 특히 레보드프로방스의 경우에는 폐쇄된 채색장의 커다란 석화면을 캔버스 삼아 펼쳐지는 환상적인 멀티미디어 쇼가 일품이다. 이 역시 3D 음향 등에서 차원이 다른 이미엑스(AMiEX) 기술 덕분에 가능한 21세기형 콘텐츠다. 한국에서도 프랑스 컬처스페이스의 제휴를 토대로 지난해 말 제주도 성산에 이 같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인 '빛의 벵커'가 들어섰다.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빛의 벵커: 클립트>전이 오는 10월 27일까지 계속되는데, 오는 12월에는 반 고흐를 폴 고갱과 더불어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글 **고성현**





# Woman in Gold

옐로 골드 주얼리와  
브레이슬릿 위치의 찬란한 매력.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중양에서 시계 방향으로) **캐리드 에센스** 화이트 다이얼에 옐로 골드 로마숫자 인덱스로 클래식한 매력을 강조했다. 2천3백만원대, 문의 1566-7277 **사실 위치 프리미어** 팔각 형태의 베젤을 따라 정교하게 세팅한 56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가 화려함을 뽐낸다. 블랙 레커 다이얼에 과감하게 인덱스를 생략해 세련미를 더했다. 3천2백만원대, 문의 090-200-2700 **프리미어 스텝스 후프** 아이징 사인팅과 원형의 링을 조합한 스텝스 컬렉션은 성품을 상징한다. 우아한 옐로 골드로 제작해 부드럽고 강인함을 갖춘 여성미를 표현했다. 가격미정, 문의 02-514-3721 **블리시 세르펜티 세두토리** 뱀 머리 모양에서 영감을 얻은 물방울 모양 케이스와 곡선 형태 링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메탈 브레이슬릿이 특징이다. 3천4백만원대, 문의 02-2056-0171 **부세온 리프트 레디언트** 옐로 골드 라지 링 하의 반자로 미치 2개의 링을 레이어드한 듯

한 느낌을 낸 **리프트 레디언트** 옐로 골드 라지 링 4백만원대, 문의 02-772-3508 **타사키 아사미** 롱 네그리스 장문장자로 활용 가능한 저울식 팬드트로 사람의 중점을 표현한 아사미릿 롱 네그리스 3백20만원대, 문의 02-3461-5558 **소메 레 제레르** 링 깔끔한 밴드 링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개를 시프릿 세팅했다. 1백만원대, **소메 비미리** **칼렉션** 링 육각형 별점을 모티브로 한 링 1백만원대, 문의 02-3442-3359 **타파니 타파니 티와이어 브레이슬릿** 끈대기 없이 간결한 형태로 모다나프를 강조했다. 2백47만원, 문의 02-547-9488 **샹투원 크림 블와인-L** 구겨진 줄이 느낌을 낸 투명 글라스 진은 와인 혹은 위스키 잔으로 추천한다. 7만4천원, **샹투원 골드 림 샤페리** 다너 플레이트와 인센스 홀더가장자리를 따라 금테를 장식해 우아하다. 다너 플레이트 7만원, 인센스 홀더 5만6천원, 문의 02-517-8001 **에디터 이주이**



Mart Dillon, New York, 2019 brioni.com

# Brioni

ROMA

TAILORING LEGENDS SINCE 1945

The Shilla Seoul B1, Galleria Luxury Hall East 4F, Shinsegae Main 6F, Shinsegae Centum City 5F  
Hyundai Main 4F, Avenuel World Tower 4F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불가리 세르펜티 바이퍼 브레이슬릿 로즈 골드 브리에 오닉스를 교차로 장식해 관능적이고 강렬한 뱀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한 브레이슬릿 6백만원대. 문의 02-2056-0170 불가리 세르펜티 스킨 네크리스 벨 비늘 모양의 유각형 모티브로 이뤄진 볼드한 펜던트가 압도적인 세르펜티 스킨 로즈 골드 네크리스. 체인과 펜던트에 총 8.65카트에 달하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1억9백만원대. 문의 02-2056-0170 반올림의 아펠 베를린 컵 러 브레이슬릿 성서한 골드 비즈 장식의 옐로 골드 브레이슬릿 양쪽 끝에 총 43개의 다이아몬드 스톤, 카보숑 컷 말라카이트를 세팅해 유쾌한 감성을 가미했다. 2천3백20만원. 문의 00798-852-16123 프래드 탱드 슈타르 인터체인저를 핑크 골드 링 리우대자네이루만을 비추는 태양 빛에서 영감을 얻은 탱드 슈타르 컬렉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볼륨감 넘치는 핑크 골드 링에 13.87카트의 카보숑 컷 에미스트를 매치해 신비롭고 투명한 빛을 발산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514-3721 부채로 새털 보헤미안 트 가넷 펜던트 아아링 벨 머리를 상징하는 빈북적인 드롭 모티브가 매력적인 핑크 골드 아아링. 28.73카트에 달하는 로돌라이트 가넷과 32개의 리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3천만원대. 문의 02-772-3908 카르띠에 라투스드 카르띠에 링 두 갈래의 선인장 모티브 위에 선명한 붉은 빛이 아름다운 스파이럴 선인장 꽃을 묘사한 핑크 골드 링. 대담한 디자인, 성서한 세공, 진귀한 펠스톤이 조화를 이룬다. 2천3백만원대. 문의 1966-7277 에디터 아베미

# Exotic encounters

낮설고 신비로운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야생을 영감으로 탄생한 이국적인 하이 주얼리.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 SWAROVSKI

#SparkDelight

Find your lucky star. Shop the new Winter Collection

# 2019 F/W Trend Report

본격적인 F/W 시즌이 시작됐다. 이번 가을과 곧 다가올 겨울, 꼭 기억해야 할 남성 컬렉션 키워드 6.

## Trend 1. Elegant Leather Pants

가죽 팬츠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모터 사이클 재킷에 거친 부츠를 신고 다리를 꽉 옥아는 식의 타이탄 가죽 팬츠 패션이 뇌리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이것은 오토바이 부대를 이야기할 때나 꺼내는 클리셰. 이번 시즌 가죽 팬츠를 보면 절로 머리에 느낌표가 꽃한다. 탐스럽고 운택한 가죽 소재를 낙낙한 형태로 만든 이런 가죽 팬츠는 오히려 스타일링하기가 한결 수월하다. 단출한 니트와 입었을 땐 멋스럽고, 핏이 완벽한 코트와 입으면 고상하며 가죽 재킷에 매치했을 경우 유행과 상관없이 세련돼 보이니까. 한 곳을 바꾼 가죽 팬츠로 간단하지만 힙 있는 룩을 완성할 수 있다. 이제 가죽 팬츠는 이번 가을 가장 손에 넣고 싶은 아이템이 되었다.

## Trend 2. Oversize Trench Coat

가을 스타일의 전형이자 영원한 클래식 아이템인 트렌치코트가 동시대적으로 변했다. 몸에 꼭 맞는 실루엣을 버리고 여유롭고 실용적이기까지 한 오버사이즈 핏을 택한 것이다. 다만 전통적인 멋이 깎여 트랜치코트의 깃이나 소매와 허리에 달린 끈은 남겨두었다. 조금은 과장이 섞인 오버사이즈 형태라도 정통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트렌드가 트렌드처럼 보이지 않는다. F/W 시즌마다 유행에 편승해 이런저런 기괴한 장식을 더해 선보이는 일회성 트렌치코트와는 결이 다르다. 새로운 계절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험프리 보가트, 알랭 들롱, 주윤발 등 트렌치코트를 잘 입던 스타들이 연상되는 그 시절의 낭만까지 함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

## Trend 3. Half and Half

단조로운 걸 참지 못하는 남성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다. 두 가지 색의 배합이나 소재를 정확히 반씩 섞은 룩이 등장한 것이다. 더없이 명확한 주제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도 열어두었다. 클래식한 코트의 전형 같 다가도 퇴폐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록 무드의 검은색 가죽 팬츠가 있었는데, 반대쪽을 보니 깨끗한 흰색 팬츠가 얼굴을 드러낸다. 고상한 것들은 어쩌면 지루해지기 쉬운 반면, 이렇게 반전의 모미를 주는 패션은 전형적이지 않아서 입는 방법이 오히려 더 풍성하다. 색과 소재의 정확한 호흡 덕에 옷 입는 즐거움이 두 배로 늘었다.

## Trend 4. Denim Set Up

가장 기본적인 옷이 패션 트렌드의 정점을 찍었다. 바로 데님이다. 데님이 없는 스타일링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패션 영역에서의 존재감은 강력하고 특별한데, 이번에는 위아래 모두 데님을 입을 수 있도록 여러 브랜드에서 데님을 내놓았다. 채도와 명도가 각기 다른 블루 데님을 포함해 갖가지 색으로 만든 데님 셋업. 덕분에 덜 투박하고 한결 경쾌해졌다. 특유의 분방한 멋과 오래 입을수록 몸에 꼭 맞게 길들이고두고 입을 맛이 나는 데님 셋업은 시도하기 어려웠던 청청 패션을 누구나 멋지게 소화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까지 충실히 해낸다.

## Trend 5. Gorgeous Velvet Suit

2019 F/W 시즌, 수트에 대한 편견이 깨졌다. 절도 있는 어깨선과 완벽하게 재단한 수트는 남성복의 소금. 그런데 여기에 소재만 바뀌 놀랍도록 은밀하고 화려한 느낌을 가미했다. 파티 룩을 이야기할 때 종종 꺼내던 벨벳 수트가 남성복에 쏟아졌으니까. 지나치게 비범한 색으로 만들어진 벨벳 수트를 진중한 컬러로 만드니 의외로 출근길에도 잘 어울린다. 견고하면서도 나긋하고 우아하면서도 관능적이다. 상상할 수 있는 테두리를 금세 뛰어넘어 요란한 타이거 패턴도 충분히 화려하다. 남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뜻밖의 호사. 사무실에서도 향락에 젖길 원하는 남자라면 벨벳 수트에 도전해보시라.

## Trend 6. Leopard Pattern

레오파드 패턴이 남성복 컬렉션에 본격적으로 얼굴을 드러냈다. 사실 작년에도, 그 이전 해에도 있었고 매년 새로운 시즌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빠지지 않는 트렌드 중 하나였지만, 특정한 브랜드에서만 슬관처럼 보였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진짜다. 이 패턴은 천 조각 하나를 만들어 특 던져나도 관능적으로 보이는 기묘한 능력이 있다. 하지만 남성들이 소화하기엔 용기가 필요했을 터. 올해, 디자인들은 정돈된 실루엣과 간결한 형태에 이 패턴을 더하는 방식으로 힘을 불어넣는다. 아무리 과감하고 복잡한 패턴도 완벽한 핏과 함께 하면 과해 보이지 않으니까. 객원 에디터 홍혜선

Elegant Leather Pants. DIOR MEN

Elegant Leather Pants. GIORGIO ARMANI

Half and Half. BURBERRY

Elegant Leather Pants. HERMÈS

Oversize Trench Coat. CELINE

Half and Half. ACNE STUDIO

Half and Half. FENDI

Oversize Trench Coat. LOUIS VUITTON

Leopard Pattern. NEIL BARRETT

Denim Set Up. JIL SANDER

Denim Set Up. JIL SANDER

Gorgeous Velvet Suit. DOLCE & GABBANA

Leopard Pattern. DIOR MEN

Leopard Pattern. MARNI

Gorgeous Velvet Suit. DUNHILL

Gorgeous Velvet Suit. RALPH LAUREN

# BAG OBSESSION

뉴 시즌, 뉴 백의 유혹. 그리고 결코 버릴 수 없는 잇 백에 대한 집착.  
*photographed by kim jae hoon*



그린 시스루 드레스, 베이지  
컬러 보디 수트, 레드 부츠, 레드  
벨트 백, 멀티컬러 퍼로그 백  
모두 가격 미정 랜디.

블랙 & 화이트 니트 드레스  
4백만원, 흰색 펌프스  
1백20만5천원, 블랙 토트백  
5백46만원 모두 보태가 배너다.





네이비 케이프 4백90만원,  
플라워 프린트 탑 2백만원,  
블랙 니트 쇼츠 80만원,  
퍼플 펌프스 1백20만원  
모두 미유미유. 캐딜 레더 백  
3백91만원 로저 비비에.





레이퍼드 칼라 드레스,  
골드 진주 장식 이어링,  
블루 모노그램 미니 백 모두  
가격 미정 루이 비통. 글라보는  
스타일리스트 개인 소장품.



다크 그레이 재킷 3백9만원,  
스커트 2백75만원, 프린트  
블라우스 가격 미정,  
버건디 숄더백 1백65만원  
모두 실버토레 페라가모.



프린트 재킷 5백30만원,  
 화이트 니트 아너 가격 미정,  
 스카프 2백20만원, 멀티컬러  
 골드 이어링 1백17만원,  
 스카프 장식의 레드 스웨이드 숄더백  
 4백19만원, 벨트 가격 미정 모두 구찌.



레더 프린팅 울 피코트  
 5백30만원, 레더 TB 로고 백  
 3백29만원 모두 버버리.

헤어 박인혜  
 메이크업 최사노  
 모델 김아현  
 어시스턴트 김현민, 김승준  
 스타일리스트 채환석



팬디 02-2056-9023  
 본태가 베네타 02-3438-7682  
 에르메스 02-542-6622  
 로저 비비에 02-6905-3370  
 마우미우 02-3218-5331  
 루이 비통 02-3432-1854  
 살비토레 페라가모 02-2140-9664  
 구찌 1577-1921  
 버버리 080-700-8800

**LEATHER SHIRT**

부드러운 촉감이 은은한 핑크 레더 셔츠  
가격 미정 토즈, 문의 02-3438-6008.  
검은색 단추로 포인트를 준 심플한 화이트 레더  
셔츠 1백61만원 통삼, 문의 02-513-2288



**SILK SHIRT**

포니 프린트를 패턴처럼 다한  
실크 셔츠 가격 미정 울로 말프 로렌,  
문의 02-3479-1510. 우아한 실크  
스카프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패턴 셔츠  
2백98만원 꾸미, 문의 1577-1921



# fall's Essential

실크부터 레더까지, 풍성한진  
소재로 돌아온 가을 셔츠의 향연.  
photographed by jung ji an

**SEE-THROUGH SHIRT**

세로 스티치로 섬세함을 부여한 블루 컬러 시스루  
셔츠 1백40만원 아크리스, 문의 02-3442-5496.  
고풍스러운 우화 프린트가 돋보이는 시스루 블라우스  
가격 미정 통삼, 문의 02-2092-6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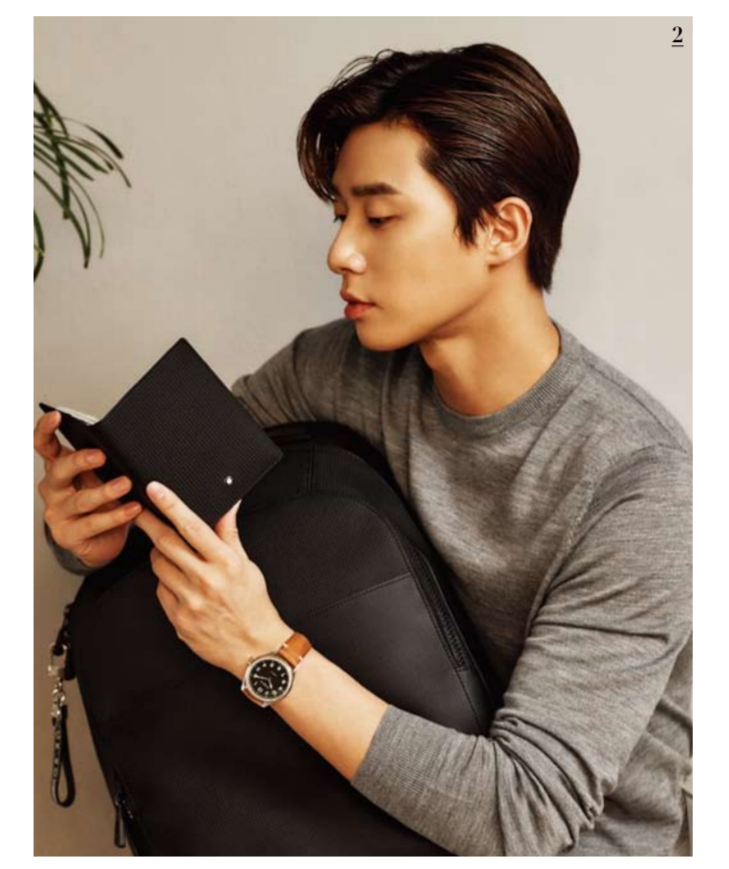
**COTTON SHIRT**

장미 프린트가 돋보이는 화이트 셔츠  
1백30만원대 프리다, 문의 02-3218-5331  
심플한 핑크 컬러 코튼 셔츠 20만원대 유고 보스,  
문의 02-515-4088. 스트라이프 패턴을 다한  
스탠드칼라 셔츠 1백만원대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개인 에디터 홍혜선



# the city Traveler

단순한 클래식을 넘어 시대를 반영한 소재와 디테일로 진화해  
여행자를 위한 다채로운 제품을 제안해온 몽블랑. 새롭게  
선보이는 #MY4810 나이트플라이트 트롤리와 익스트림 2.0  
컬렉션은 시티 여행에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다.



1906년 출장이 잦은 비즈니스맨을 위한 일체형 만년필을 제작하며 브랜드 역사를 시작한 몽블랑. 엄격한  
공정과 특별한 기술, 시그니처 디자인이 어우러진 필기구와 시계, 레더 제품, 액세서리, 향수 및 아이웨어  
에 이르는 다양한 라인을 선보이며 1백10여 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적극적으로 자유로운 현대 도시인  
의 생활 방식을 겨냥해 실용성과 기능성을 강조한 제품을 끊임없이 제안하고 있는데, 이 중 #MY4810 나  
이트플라이트 트롤리 컬렉션은 정교한 기술과 특유의 절제된 분위기가 돋보이는 제품이다. 이탈리아 장인  
정신에 기반해 내충격성, 내열성, 내후성 등이 뛰어난 고기능성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해 내구성을 높인  
것은 물론, 초경량으로 실용성을 강조했다. 내부 수납공간을 세분화해 별도의 파우치 없이도 짐을 효율적  
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장점. 내부에는 탈착 가능한 레더 패치가 있어 도난과 파손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한다. 우수한 TSA 록을 잠금장치에 적용해 외부 충격과 위험물 검사에 의한 파손 위험성도 줄였다. 손잡이  
에는 사용자를 고려해 높이 조절이 용이한 멀티 스톱 바를 장착했다. 또 360도 어느 방향이든 부드럽게 회  
전하는 베어링 처리한 4개의 바퀴로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다. 도시 여행자와 모험가를 위해 파일럿, 콤팩트  
캐빈, 캐빈, 미디엄, 스몰 등 다양한 크기로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처음 출시한 이래 브랜드의  
또 다른 시그니처로 자리매김한 익스트림 2.0 컬렉션도 주목할 만하다. 정제된 실루엣에 견고하고 가벼운  
카본 파이버 프린트 레더와 부드러운 플레인 레더를 조합한 것이 특징. 백팩과 브리프케이스를 비롯해 지갑  
과 여권 케이스 등 실용적인 아이템 구성이 돋보인다. 단정한 실루엣으로 비즈니스웨어는 물론 캐주얼 패션  
과도 잘 어울려 더욱 감각적인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 있다. 에디터 **이주이**

1 #MY4810 나이트플라이트 트롤리 콤팩트 캐빈 사이즈 35X55X21cm 85만원, 지름 42mm 스티치 케이스의 스마트 워치 몽블랑 셔츠 1백27만원  
모두 몽블랑, 2 익스트림 2.0 백팩 라지 사이즈 1백32만원, 익스트림 2.0 여권 지갑 25만원, 1858 오트메틱 워치 3백33만원,  
미니스타스틱 소프트 그레이인 익스트림 키홀더 23만원 모두 몽블랑, 3 #MY4810 나이트플라이트 트롤리 캐빈 사이즈 38X55X23cm 85만원,  
단정한 외관을 자랑하는 #MY4810 나이트플라이트 백팩 미디엄 사이즈 90만원 모두 몽블랑.

**Travel Pop-up Store in Seoul**  
전 세계 주요 도시를 기점으로 선보이는 몽블랑의 글로벌 프로젝트 '트래블 팝업  
스토어'를 오는 10월 한남동에 위치한 복합 문화 공간 시온조남에서 만날  
수 있다. 10월 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열리는 #MY4810 나이트플라이트  
트롤리 컬렉션을 비롯해 익스트림 2.0 컬렉션 등 몽블랑의 다양한 컬렉션은  
물론 다채로운 이벤트를 체험할 수 있는 흥미로운 공간으로 관람객을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1670-4810

# black Impression

스트랩부터 로고, 버클 장식까지 올 블랙으로 강렬한 존재감을 자랑하는 뉴 백 7. *photographed by park jae young*

(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견고한 사파이는 가죽으로 제작한 모노그램 백 2백40만원에 프라다, 악어가죽 프린트를 적용한 디 스타일링 백 1백96만5천원 토즈, 부드러운 가벼운 양가죽 에센 크로스 보디 파우치 1백25만원 자형시, 고유의 인트레치아토 기법을 모티브로 한 페디드 키세트 백 2백98만5천원 보타가 베라타, 자연스러운 광택이 돋보이는 파이넨트 올 오버 버킷 백 가격 미정 샹 로랑, 빈지 형태의 주얼 장식이 멋스러운 메가넬 주얼 사켈 백 3백29만원 알렉산더 맥퀸, 구조적 형태의 스냅식 디테일 카메라 백 57만5천원 마크 제이콥스, 에디터 이쥬이



자브라라 레오파드, 스타드 장식이 시선을 사로잡는 씨씨 미디엄 체인 숄더백, 길이 조절 가능한 체인 스트랩을 더해 숄더백과 크로스 보디 백으로 연출 가능하다. 79만원 마이클 코어스.



견고한 형태가 돋보이는 초 사첼 백은 특유의 시그니처 모노그램을 잔잔히 적용해 상징성을 더했다. 65만원, 트러치 노트나 데님 팬츠와도 완벽한 조화를 이룰 만한 플렌스 루티 38만원, 모두 마이클 코어스.

# Urban chic

바야흐로 가을, 우아하면서도 실용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어떤 젯세터를 위해 마이클 코어스가 제안하는 시그니처 백과 슈즈. *photographed by park jae young*

강렬한 레드 파이론 패턴이 시선을 사로잡는 씨씨 미디엄 체인 숄더백 61만원, 베이지와 브라운 모노그램 패턴을 패치워크한 사이미스 레이스업 스니커즈 25만원, 모두 마이클 코어스.



넉넉한 수납공간을 자랑하는 에버 라지 토티백, 탈착 가능한 별도의 내장 파우치로 실용성을 배가했다. 41만원, 5cm 높이의 두툼한 아웃솔이 특징인 켈리 트러치너 슈즈 35만원, 모두 마이클 코어스. 문의 02-3479-1852 에디터 이쥬이



# autumn No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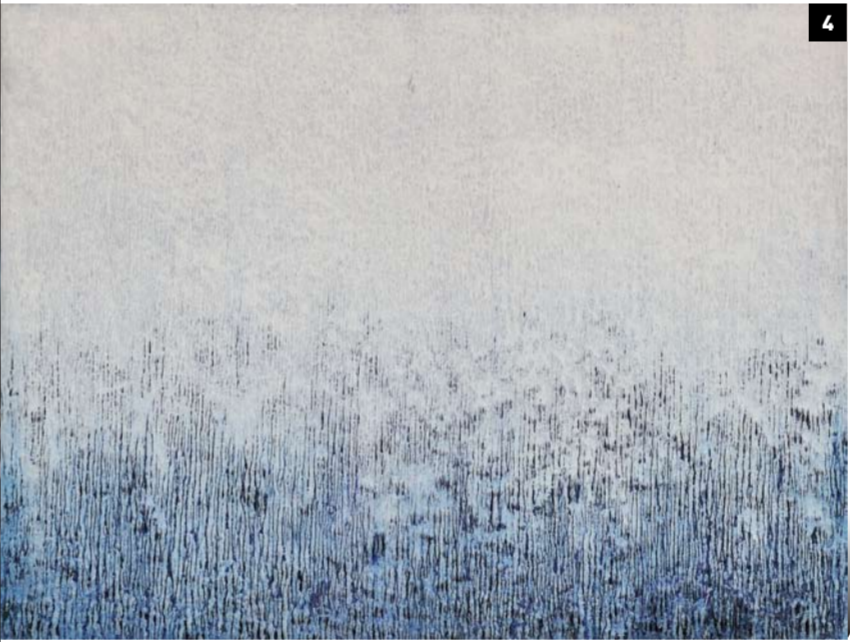
시들한 가을바람에 잘 어울리는 깊고 진한 향으로  
같이 있어야 할 시간이 왔다. *photographed by park jac yong*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바예르도 알바니스 아워 오드 퍼퓸** 내림산 벼 티머 페퍼의 스킨 향으로 시작해 무화과와 달콤한 향을 거쳐 톱카 빈, 캐시미어 우드가 조화를 이루는 부드러운 향기로 마무리되는 향수. 100ml 23만5천원, 문의 02-3479-1688 **달타르 베르베리 오드 퍼퓸** 고농축 베르베르 에센스를 25% 이상 함유해 묵직한 우디 향을 느낄 수 있다. 47개 여성 향수의 원료로 자주 사용되는 다마스크 로즈를 조합해 섬세한 무드까지 기대했다. 75ml 21만원, 문의 02-3479-6049 **프랑시앵 말 유스크 라베레** 갠 실린더 형태의 올 블랙 보틀에 담긴 신성하고 관능적인 마스크 향이 매력적이다. 베르가모트, 탠저린, 시니몬이 어우러진 폭발적인 향으로 시잔해 바닐라, 마스카, 앵버 향으로 마무리된다. 30ml 17만5천원, 문의 02-3479-6263 **매종 프랑시스 카링 우드 사틴 무드** 페르팩을 코타르로 한 우드 컬렉션 중 향을 강하게 살려낸 사틴 페르팩의 강추움 연상시키는 향. 오리엔탈과 플로럴 향조를 더한 우드의 깊고 풍부한 향을 즐길 수 있다. 70ml 31만원, 문의 02-6305-3769 **구탈 파리 듀엘** 남성을 위한 우디 & 이리 마릭 계열 향수. 파란색이 페리그린의 활기찬 향과 그린 마테 잎의 섬세한 향을 조합해 다양한 면모를 지닌 매력적인 남성성을 표현했다. 100ml 21만5천원, 문의 080-023-5454 **클라만 우먼 인 골드**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 '이젤레'를 모티브로 바우어의 초상에서 영감을 얻어 입체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텍스처를 풍부하게 구현하고자 했다. 베르가모트, 로즈, 톱카 빈, 바닐라 등의 노트가 어우러져 우아하고 달콤한 향이 특징. 50ml 34만5천원, 문의 02-3440-2591 **르 라보 베이 로즈 26** 117가지 시티 위스키를 시비 컬렉션 중 사카고를 테마로 한 향수. 핑크 페퍼, 알데하이드, 마스쿠를 더한 색다른 스킨향으로 향이 시카고 재즈의 리드미컬한 선율을 떠올리게 한다. 50ml 33만5천원, 문의 02-3440-2591 **에디터 이베미**



## 깊고, 고요하고, 빛나는 검은 현(玄)

품고 있는 색이 많기에 그 색을 온전히 담을 수 없어서 검고,  
고요함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깊다. 이진우 작가의 작품에는 거친 표면 속  
침착하게 빛나는 찰나의 순간을 마주하는 시간이 선물처럼 담겨 있다.



1 Untitle(19-AC-29), 캔버스에 한지, 혼합 재료, 130X168cm, 2018~19. 2 조선일보미술관 기획전 2019 Art Chosun on Stage IV (玄 : 깊다, 고요하다, 빛나다)전은 10월 2일부터 20일까지 조선일보미술관에서 열린다. 3 Untitle(19-AC-03), 캔버스에 한지, 혼합 재료, 165X218cm, 2018~19. 4 Untitle(19-AC-17), 캔버스에 한지, 혼합 재료, 55X73.5cm, 2018~19.

### 겉보다는 속에 집중하다

서울에서 태어나 서양화를 전공한 뒤 1983년 프랑스로 떠났다. 그곳에서 순수 미술이 아닌 미술 재료학을 공부한 작가는 어쩌면 회화 작품의 길모습보다는 한꺼풀 드러내야 비로소 보이는 내면 깊은 곳을 관찰하고 탐구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1993년 한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기준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면서 재사용 가능한 한지를 1순위 재료로 여기게 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의 작업은 솟이 놓인 한지를 우직함 정도로 끊임없이 쇄설로 긁고 두드리는 강도 높은 작업. 솟을 잘게 부수거나 굵은 알갱이 형태를 유지하며 한지를 스치고, 덮어 얹는 과정을 반복하며 적게는 수 겹, 많게는 수십 겹에 이르는 두께와 질감을 품은 바탕을 만든다. 솟가루 알갱이 크기에 변주를 주거나, 솟가루에 물감을 얹은 표면을 쇄설로 긁고 또 긁기를 반복해 불규칙적인 입체 표면을 만드는 과정에서 쇄설은 거친 표면을 평평하게 만든다기보다는 반복적인 움직임을 통해 결국 하나의 '남김'을 만들어낸다. 검은색이나 회색 혹은 푸른 기가 감도는 한지 표면은 그 안에 축적된 작은 솟 덩어리가 모여 이뤄내는 물질적인 효과 때문에 깊은 무채색으로 보인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삶과 죽음을 연상시킬 만큼 묵상적인 느낌을 주는데, 이 특유의 오라와 장엄한 분위기가 이진우 작품의 특징. 이진우 작가의 작품은 언뜻 보면 살짝 어둡고 단조로운 듯 느껴지지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 힘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사진: 세림 이태준

### 비탕에서 태동하는 근작 29점

2017년 이후 2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개인전은 최선과 최고의 작품만을 선보이겠다는 작가의 다짐을 담았다. 전시 평론을 맡은 케이트 림(미술 저술가, 아트 플랫폼 아시아 대표)은 그의 작품에 대해 비탕에서 태동한 그림이라 평했다. 프랑스에서 보낸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표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서구적 요소와 결합한다는 의미로 거의 모든 작품을 불태우기까지 했던 이진우 작가는 한국에서 머물다 2005년 또다시 파리로 떠나 추상화를 시작했고, 2009년부터는 완전한 추상화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현재의 기법에 정착했다. 서구 미술 계보를 벗어나 다른 길을 택하면서 시작된 작가의 작업은 오랜 시간 몸담아온 흐름을 이탈한 이유, 그가 비탄하던 당시 미술계 상황과 어떤 근본적인 차별성을 띠고 있는지는 물론이고, 어떠한 물리적인 노력을 통해 회화의 확장을 성취했는지까지 담고 있다. 이런 작가의 근작 29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깊은 산속 혹은 바닷속 살아 숨 쉬는 모든 생명을 담은 비탕에서 태동한 그림을 소개한다. 이진우 작가는 "작업 과정을 성실한 노동이라 생각한다. 잔피 부리지 않고 미련하게 하는 노동. 이런 태도와 생각은 한결같다. 작업의 기본은 하루하루 삶이 하나의 연속성을 이루는 것이다. 일정한 속도로 매 순간 행하는 작업이 꾸준히 쌓여 하나의 선 위에서 결과를 낸다"라고 했다. 마치 매일 200자 원고지 20매는 반드시 채우는, 잘 풀린다고 더 쓰지 않고 안 풀린다고 손을 놔버리지 않는 꾸준함의 상징, 무라카미 하루키 같기도. 빛, 바람, 삶, 죽음 등을 모티브로 작업하며 '인간의 생을 작품에 담지만 절대 표면에 드러내지 않고, 특정 단어에 집착하며 일일이 설명하기를 지양하는 작가의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는 작품에서는 깊은 내공과 단단함이 느껴진다. 가을바람처럼 스치듯 다가와 오래오래 바라보고 싶은 작품이다. 10월 2일부터 20일까지 조선일보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724-7832

# editor's Pick

이번 가을, 당신을 더욱 아름답게  
가꿔줄 뷰티 아이템 13.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불가리 퍼플 로즈 골데아 블러임 딜라이트** 펠스 중성적인 향을 선호하는 편이라 플로럴 계열 향수에는 손이 가지 않는 터. 허란 신선한 프루티 계열 향을 시작으로 은은한 장미 향이 이어지고, 화이트 마스크의 깊고 차분한 향으로 마무리되어 매력적이다. '넓게 분사되어 두 번의 펌핑만으로 완벽하게 로맨틱한 향을 얻을 수 있다. 75ml 16만5천원. 문의 080-990-8989 **\_by 에디터 이주이**

**디올 루즈 디올 울트라 케어 #999 블룸** 한 번의 터치만으로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어준 마법 같은 아이템. 발색이 선명한 것은 물론 발림성이 부드러워 데다 제품 중앙에 플러쉬 오일을 함유해 입술 컬러 효과까지 두루 갖췄다. 촉촉한 수분감으로 건조한 가을 립 메이크업엔 이 제품 하나면 충분할 듯. 3.2g 4만5천원. 문의 080-342-9500. **\_by 에디터 이주이**

**SK-II 미라클 오일** 수분 크림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건조한 탓에 나이트 케어 루틴에 오일을 추가했다. 최근 즐겨 사용하는 제품은 피타과 에센스와 오일을 적정 한 비율로 섞어 보습 효과는 물론 50여 가지 영양 성분을 공급하는 미라클 오일. 에센스 디올 단계에서 덧바르거나 수분 크림에 한두 방울 섞어 바로면 다음 날 아침까지 피부 날씨가 촉촉한 느낌이 유지된다. 50ml 16만원. 문의 080-023-3333. **\_by 에디터 이혜미**

**솜37 스킨케어 에센스 감작성이트 알파벳에이션 에디션** 피부 건조도 향기 이스트 감작성이트 감작성이트 제품도 감상할 수 있는 제품. 기법도 신뜻하게 마무리되는 에센스 타입으로 화장실에 들락 적서 팩처럼 활용했다니 화장기 기법에선 피로없이 매끄럽게 장도된다. 자연 발효로 추출해 순한 페룰산 성분 덕분에 민감한 에디션 피부에도 적합. 230ml 15만원. 문의 080-023-7007. **\_by 에디터 이주이**

**나스 벨벳 매트 립 펜슬 #프로미스큐어** 립펜슬 아이라이 아이 메이크업에도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유즈 펜슬. 매트한 표현력에 반해 텍스처 자체는 매우 매끄럽고 부드러운 입술 주름, 각질 등이 부각되지 않는 것이 만족스럽다. 톤 다룬된 오리지널 컬러는 한 번 칠하면 부는 게젤과 더불어 나뉘 없이 잘 어울린다. 2.4g 3만7천원. 문의 02-6905-3747. **\_by 에디터 이혜미**

**구찌 장미를 위한 노래 'A Song for the Rose'**라는 이름에서부터 사적인 느낌과 맞닿는다. 장미 향은 살짝 촘촘한 에디션의 편견을 완전히 깬 향수. 달콤한 마스크, 강한 우드와 함께 불연단한 로즈는 하루 종일 공명하게 만드는 매력이었다. 100ml 44만원. 문의 080-850-0708. **\_by 에디터 장리윤**

**섹시포플라 렉시 블러싱 리퀴드 아이라이너** 유분이 많은 지성 피부라 오후가 되면 아이라이너가 쉽게 번트는데, 이 제품은 장시간 메이크업에도 끄떡없다. 바르는 순간 빠르게 건조되어 가볍게 속 바르고 나면 또렷한 아이 메이크업 완성. 전용 리무버 없이 미온수만으로 깔끔하게 클렌징되어 장시간 소화해 주는 여행용으로 도출을 듯. 0.6g 2만원. 문의 02-540-6905. **\_by 에디터 이주이**

**이솝 시그니피칸트 페이스 하이드레이터** 약한 자극에도 금세 붉게 달아오르는 민감 피부인 탓에 충분한 보습과 진정 제품으로 피부 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편이다. 이와 같은 고민을 지닌 이들을 위해 탄생한 이솝의 첫 번째 하이드레이터 제품. 조류의 일종인 두날라멜라 실리나 추출물, 수산화 비늘줄기 추출물 등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이 되는 식물성 성분을 조합했다. 60ml 7만1천원. 문의 1800-1367. **\_by 에디터 이혜미**

**갈랑 바퀴르 골드 미스트** 무엇보다 사용 시 첫 느낌 가볍고 상쾌하고 촉촉하다. 수시로 덧발라 메이크업에 수분을 공급하면 자연스럽게 광채를 선사한다. 메이크업을 강하게 고정하는 역할까지 해 기분에 넣어 가지고 다녔고 싶지만, 그리간트 싹크 크고 무거워 아니다. 30ml 6만원. 문의 080-343-9500. **\_by 에디터 장리윤**

**조 말론 샌드 투고** 액세서리 형태의 코뿔우로 가볍고 콤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핸드백에도 쉽게 넣을 수 있다. 화이트 프라자아 부케 향, 카리브해의 라인과 바질, 그리고 석류와 라즈베리를 섞어 숲에 들어온 기분. 책상 위 약 80cm 거리에 두어도 코에 향기로운 신뜻한 향이 솔솔 풍긴다. 30g 6만9천원. 문의 02-3440-2750. **\_by 에디터 장리윤**

**시슬리 에킬리움 에몰로지오 2019 리미티드 에디션** 묽은 텍스처와 아침에 사용하기에 끈적임 없이 가볍고 상쾌해 마음에 든다. 다른 제품을 사용하기 전 피부를 준비시키기 위해 사용하면 더 좋으며, 인삼, 로즈마리, 흙, 쇠뜨기 같은 식물 추출물 혼합체라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이다. 125ml 25만5천원. 문의 080-549-0216. **\_by 에디터 장리윤**

**에스티 로더 라-누트리브 울트라 레디언스 세럼 쿠션 #블 포슬린** 가볍고 촉촉한 텍스처에 울트라 캐비타까지 결합해 얇고 깨끗한 피부 표현이 가능한 제품. 보스처럼 빛나는 광채 피부에 착안해 젤스톤을 향상시킨 별도의 클로저를 다한 것이 인상적이다. SPF 40/PA++++의 자외선 차단 기능이 갖췄다. 12g 2 15만원. 문의 02-6971-3212. **\_by 에디터 이혜미**

**모로칸오일 슝 프래그런스 오리지날** 은은하게 퍼지는 향이 마치 아로마 테라피를 받은 듯 편안한 느낌을 선사한다. 향신료 성분은 기분을 이쁘게 오일과 알로에 추출물, 시아버터 성분을 함유해 샤워 후 보디 미스트로만 마무리했음에도 땅기지 않고 촉촉했다. 피라벤, 마네발 오일, 셀레늄 등을 함유하지 않아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다. 200g 1만9천원. 문의 1666-5125. **\_by 에디터 이주이**



\* 장리윤(40대 간성), 이혜미(30대 민감성), 이주이(20대 지-복합성)

## BEAUTY

**펜탈리곤스**  
로즈드뷰 엑스칼리버 42 오트메틱 스텔레톤 로즈드뷰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풀 메탈 브레이슬릿 '엑스칼리버 42 오트메틱 스텔레톤'이 2가지 버전으로 출시된다. 첫 번째 모델은 18K 핑크 골드 제품으로, 전체적으로 핑크 골드를 적용해 클래식하면서도 무드를 더했다. 두 번째 모델은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으로 스틸 소재의 케이스와 스트랩, 클래식으로 구성했으며, 핸즈에는 18K 화이트 골드를 사용해 럭셔리 타입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두 제품 모두 5BAR 방수와 60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췄다. 문의 02-3449-5914

**헬레나루빈스타인**  
로즈드뷰 엑스칼리버 42 오트메틱 스텔레톤 로즈드뷰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풀 메탈 브레이슬릿 '엑스칼리버 42 오트메틱 스텔레톤'이 2가지 버전으로 출시된다. 첫 번째 모델은 18K 핑크 골드 제품으로, 전체적으로 핑크 골드를 적용해 클래식하면서도 무드를 더했다. 두 번째 모델은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으로 스틸 소재의 케이스와 스트랩, 클래식으로 구성했으며, 핸즈에는 18K 화이트 골드를 사용해 럭셔리 타입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두 제품 모두 5BAR 방수와 60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췄다. 문의 02-3449-5914

**로즈드뷰 엑스칼리버 42 오트메틱 스텔레톤**  
로즈드뷰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풀 메탈 브레이슬릿 '엑스칼리버 42 오트메틱 스텔레톤'이 2가지 버전으로 출시된다. 첫 번째 모델은 18K 핑크 골드 제품으로, 전체적으로 핑크 골드를 적용해 클래식하면서도 무드를 더했다. 두 번째 모델은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으로 스틸 소재의 케이스와 스트랩, 클래식으로 구성했으며, 핸즈에는 18K 화이트 골드를 사용해 럭셔리 타입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두 제품 모두 5BAR 방수와 60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췄다. 문의 02-3449-5914

**로즈드뷰 엑스칼리버 42 오트메틱 스텔레톤**  
로즈드뷰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풀 메탈 브레이슬릿 '엑스칼리버 42 오트메틱 스텔레톤'이 2가지 버전으로 출시된다. 첫 번째 모델은 18K 핑크 골드 제품으로, 전체적으로 핑크 골드를 적용해 클래식하면서도 무드를 더했다. 두 번째 모델은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으로 스틸 소재의 케이스와 스트랩, 클래식으로 구성했으며, 핸즈에는 18K 화이트 골드를 사용해 럭셔리 타입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두 제품 모두 5BAR 방수와 60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췄다. 문의 02-3449-5914

**로즈드뷰 엑스칼리버 42 오트메틱 스텔레톤**  
로즈드뷰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풀 메탈 브레이슬릿 '엑스칼리버 42 오트메틱 스텔레톤'이 2가지 버전으로 출시된다. 첫 번째 모델은 18K 핑크 골드 제품으로, 전체적으로 핑크 골드를 적용해 클래식하면서도 무드를 더했다. 두 번째 모델은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으로 스틸 소재의 케이스와 스트랩, 클래식으로 구성했으며, 핸즈에는 18K 화이트 골드를 사용해 럭셔리 타입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두 제품 모두 5BAR 방수와 60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췄다. 문의 02-3449-5914

**로즈드뷰 엑스칼리버 42 오트메틱 스텔레톤**  
로즈드뷰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풀 메탈 브레이슬릿 '엑스칼리버 42 오트메틱 스텔레톤'이 2가지 버전으로 출시된다. 첫 번째 모델은 18K 핑크 골드 제품으로, 전체적으로 핑크 골드를 적용해 클래식하면서도 무드를 더했다. 두 번째 모델은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으로 스틸 소재의 케이스와 스트랩, 클래식으로 구성했으며, 핸즈에는 18K 화이트 골드를 사용해 럭셔리 타입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두 제품 모두 5BAR 방수와 60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췄다. 문의 02-3449-5914

**로즈드뷰 엑스칼리버 42 오트메틱 스텔레톤**  
로즈드뷰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풀 메탈 브레이슬릿 '엑스칼리버 42 오트메틱 스텔레톤'이 2가지 버전으로 출시된다. 첫 번째 모델은 18K 핑크 골드 제품으로, 전체적으로 핑크 골드를 적용해 클래식하면서도 무드를 더했다. 두 번째 모델은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으로 스틸 소재의 케이스와 스트랩, 클래식으로 구성했으며, 핸즈에는 18K 화이트 골드를 사용해 럭셔리 타입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두 제품 모두 5BAR 방수와 60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췄다. 문의 02-3449-5914

**로즈드뷰 엑스칼리버 42 오트메틱 스텔레톤**  
로즈드뷰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풀 메탈 브레이슬릿 '엑스칼리버 42 오트메틱 스텔레톤'이 2가지 버전으로 출시된다. 첫 번째 모델은 18K 핑크 골드 제품으로, 전체적으로 핑크 골드를 적용해 클래식하면서도 무드를 더했다. 두 번째 모델은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으로 스틸 소재의 케이스와 스트랩, 클래식으로 구성했으며, 핸즈에는 18K 화이트 골드를 사용해 럭셔리 타입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두 제품 모두 5BAR 방수와 60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췄다. 문의 02-3449-5914

# SHOWROOM

**로즈드뷰 엑스칼리버 42 오트메틱 스텔레톤**  
로즈드뷰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풀 메탈 브레이슬릿 '엑스칼리버 42 오트메틱 스텔레톤'이 2가지 버전으로 출시된다. 첫 번째 모델은 18K 핑크 골드 제품으로, 전체적으로 핑크 골드를 적용해 클래식하면서도 무드를 더했다. 두 번째 모델은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으로 스틸 소재의 케이스와 스트랩, 클래식으로 구성했으며, 핸즈에는 18K 화이트 골드를 사용해 럭셔리 타입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두 제품 모두 5BAR 방수와 60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췄다. 문의 02-3449-5914

**로즈드뷰 엑스칼리버 42 오트메틱 스텔레톤**  
로즈드뷰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풀 메탈 브레이슬릿 '엑스칼리버 42 오트메틱 스텔레톤'이 2가지 버전으로 출시된다. 첫 번째 모델은 18K 핑크 골드 제품으로, 전체적으로 핑크 골드를 적용해 클래식하면서도 무드를 더했다. 두 번째 모델은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으로 스틸 소재의 케이스와 스트랩, 클래식으로 구성했으며, 핸즈에는 18K 화이트 골드를 사용해 럭셔리 타입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두 제품 모두 5BAR 방수와 60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췄다. 문의 02-3449-5914

**로즈드뷰 엑스칼리버 42 오트메틱 스텔레톤**  
로즈드뷰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풀 메탈 브레이슬릿 '엑스칼리버 42 오트메틱 스텔레톤'이 2가지 버전으로 출시된다. 첫 번째 모델은 18K 핑크 골드 제품으로, 전체적으로 핑크 골드를 적용해 클래식하면서도 무드를 더했다. 두 번째 모델은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으로 스틸 소재의 케이스와 스트랩, 클래식으로 구성했으며, 핸즈에는 18K 화이트 골드를 사용해 럭셔리 타입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두 제품 모두 5BAR 방수와 60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췄다. 문의 02-3449-5914

**로즈드뷰 엑스칼리버 42 오트메틱 스텔레톤**  
로즈드뷰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풀 메탈 브레이슬릿 '엑스칼리버 42 오트메틱 스텔레톤'이 2가지 버전으로 출시된다. 첫 번째 모델은 18K 핑크 골드 제품으로, 전체적으로 핑크 골드를 적용해 클래식하면서도 무드를 더했다. 두 번째 모델은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으로 스틸 소재의 케이스와 스트랩, 클래식으로 구성했으며, 핸즈에는 18K 화이트 골드를 사용해 럭셔리 타입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두 제품 모두 5BAR 방수와 60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췄다. 문의 02-3449-5914

**로즈드뷰 엑스칼리버 42 오트메틱 스텔레톤**  
로즈드뷰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풀 메탈 브레이슬릿 '엑스칼리버 42 오트메틱 스텔레톤'이 2가지 버전으로 출시된다. 첫 번째 모델은 18K 핑크 골드 제품으로, 전체적으로 핑크 골드를 적용해 클래식하면서도 무드를 더했다. 두 번째 모델은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으로 스틸 소재의 케이스와 스트랩, 클래식으로 구성했으며, 핸즈에는 18K 화이트 골드를 사용해 럭셔리 타입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두 제품 모두 5BAR 방수와 60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췄다. 문의 02-3449-5914

**로즈드뷰 엑스칼리버 42 오트메틱 스텔레톤**  
로즈드뷰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풀 메탈 브레이슬릿 '엑스칼리버 42 오트메틱 스텔레톤'이 2가지 버전으로 출시된다. 첫 번째 모델은 18K 핑크 골드 제품으로, 전체적으로 핑크 골드를 적용해 클래식하면서도 무드를 더했다. 두 번째 모델은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으로 스틸 소재의 케이스와 스트랩, 클래식으로 구성했으며, 핸즈에는 18K 화이트 골드를 사용해 럭셔리 타입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두 제품 모두 5BAR 방수와 60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췄다. 문의 02-3449-5914

**로즈드뷰 엑스칼리버 42 오트메틱 스텔레톤**  
로즈드뷰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풀 메탈 브레이슬릿 '엑스칼리버 42 오트메틱 스텔레톤'이 2가지 버전으로 출시된다. 첫 번째 모델은 18K 핑크 골드 제품으로, 전체적으로 핑크 골드를 적용해 클래식하면서도 무드를 더했다. 두 번째 모델은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으로 스틸 소재의 케이스와 스트랩, 클래식으로 구성했으며, 핸즈에는 18K 화이트 골드를 사용해 럭셔리 타입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두 제품 모두 5BAR 방수와 60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췄다. 문의 02-3449-5914

**로즈드뷰 엑스칼리버 42 오트메틱 스텔레톤**  
로즈드뷰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풀 메탈 브레이슬릿 '엑스칼리버 42 오트메틱 스텔레톤'이 2가지 버전으로 출시된다. 첫 번째 모델은 18K 핑크 골드 제품으로, 전체적으로 핑크 골드를 적용해 클래식하면서도 무드를 더했다. 두 번째 모델은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으로 스틸 소재의 케이스와 스트랩, 클래식으로 구성했으며, 핸즈에는 18K 화이트 골드를 사용해 럭셔리 타입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두 제품 모두 5BAR 방수와 60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췄다. 문의 02-3449-5914

## JEWEL&WATCH

## FASHION

타사키

불가리

에르메스

에르메스

타사키

타사키

타사키

타사키

타사키

타사키

타사키

타사키

HR  
HELENA RUBINSTEIN



프로디지 셀 글로우  
다이아몬드 광채 세럼

프로디지 셀 글로우  
다이아몬드 광채 크림  
주름개선기능성승인

**NEW** 프로디지 셀 글로우

화이트 다이아몬드 - 에델바이스,  
눈부시게 젊음\* 다이아몬드 광채 피부

\*아방가르드,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헬레나 루빈스타인, 10월 3일 한국 공식 오픈 -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WEST 1F (02)6905-3389

\*프로디지 셀 글로우 다이아몬드 광채 크림 함께 사용시에 한 함